

## 경제포커스

### ■ 서울시 외국인 현황과 특성

윤형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 서울시 외국인 투자경영환경과 투자유치를 위한 과제

최경규(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서울시 외국인 현황과 특성

윤형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younh@sdi.re.kr

## I. 들어가는 말

민선3기 이후 서울시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를 지향하면서 외국기업과 기업인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이러한 공공부문의 노력과 별개로 국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외국인의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먼저 최근 외국인의 증가의 특성과 거주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거주 외국인의 체류별 자격 자료를 분석하여 향후 고급외국인 유치를 위한 정책자료를 제시한다. 셋째, 향후 10년 후 외국인 수를 추정함으로써 서울시의 국제화 속도를 가늠해 보고 관련한 외국인 정책의 중요성을 환기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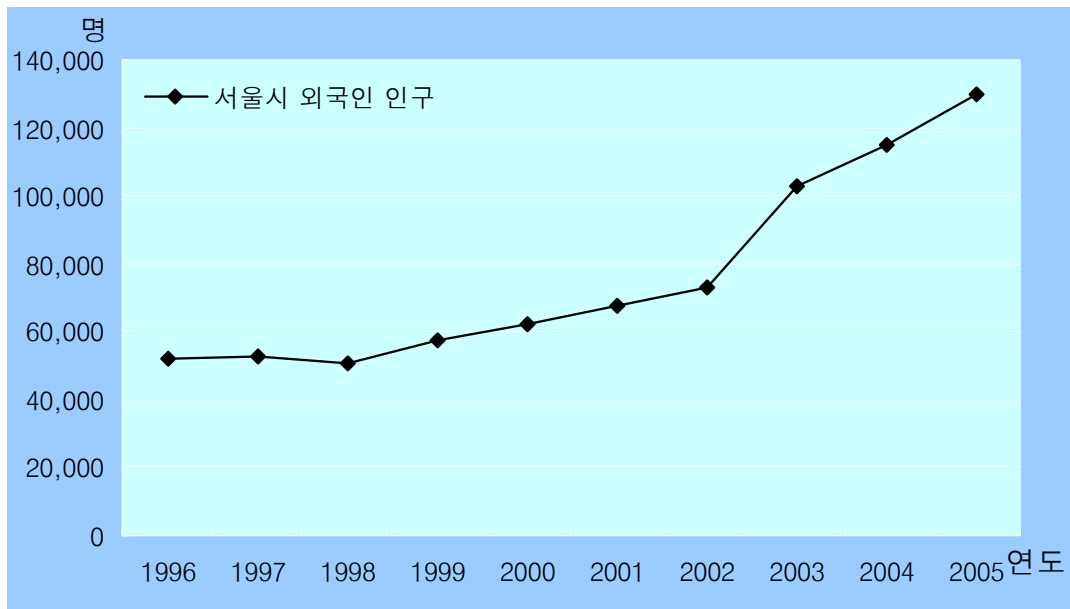
\* 저자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오레곤주립대학 경제학 박사
- “서울시 고령자고용개발체계에 관한 연구”, 2006년 시정개발연구원 기본과제

## II. 외국인 인구현황

### 1. 전체 현황

- 서울의 경우 지난 5년간 외국인 인구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2005년 말 현재 서울시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13만여 명으로 이는 서울시 전체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005년도 서울시의 외국인 등록자 수는 전년도 대비 13% 증가하였다. 서울시 외국인 인구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사이 약 2.5배 증가하였는데 특히 2002년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 2002년 이후 가장 큰 급등세를 보인 곳은 구로, 관악, 중랑, 영등포, 동대문, 성동 순이며, 이 중 구로구와 영등포구의 인구증가 원인은 주로 외국인 노동자로 추정된다. 그 외 외국인이 5천명 이상 거주하는 밀집지역은 용산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서울시 외국인 인구추이

<표 1> 연도별 서울시 외국인 거주 구별 현황

(단위: 명)

	1996(A)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B)	B/A(%)
종로	1,912	1,915	1,887	2,275	2,568	2,813	2,993	3,922	4,202	4,546	137.8
중구	2,650	2,788	2,550	2,807	3,064	3,319	3,469	4,250	4,614	4,393	65.8
용산	7,330	7,379	7,331	8,227	8,707	9,517	10,565	8,852	8,963	9,817	33.9
성동	1,292	1,411	1,285	1,529	1,718	2,096	2,245	4,561	4,879	4,947	282.9
광진	1,478	1,244	1,404	1,644	1,746	1,981	1,967	3,730	4,144	4,867	229.3
동대문	1,220	1,109	1,229	1,343	1,678	2,023	2,515	3,939	4,492	5,170	323.8
중랑	540	573	537	697	815	1,037	1,121	1,922	2,205	2,549	372.0
성북	2,164	2,310	2,271	2,537	2,626	2,915	3,159	3,478	3,919	4,429	104.7
강북	633	625	610	709	777	913	1,010	1,431	1,750	2,074	227.6
도봉	959	812	758	858	956	1,059	1,175	1,567	1,672	1,919	100.1
노원	1,090	1,144	1,040	1,271	1,434	1,710	1,933	2,003	2,371	2,852	161.7
은평	1,115	1,177	1,133	1,252	1,330	1,523	1,668	2,065	2,233	2,705	142.6
서대문	4,605	4,911	4,993	5,457	5,725	5,088	5,387	6,001	6,115	6,771	47.0
마포	2,209	2,380	2,330	2,587	2,793	3,054	3,360	4,178	4,654	4,991	125.9
양천	1,342	1,376	1,233	1,309	1,501	1,750	1,750	1,832	2,295	3,033	126.0
강서	1,366	1,487	1,291	1,498	1,731	2,053	1,848	2,670	3,091	3,713	171.8
구로	1,285	1,224	1,171	1,350	1,689	2,123	2,426	6,593	7,897	10,714	733.8
금천	2,149	1,976	1,436	1,829	2,337	2,585	2,591	6,131	6,414	7,034	227.3
영등포	2,761	2,824	2,639	2,870	2,889	3,060	3,399	7,625	9,628	12,941	368.7
동작	1,265	1,350	1,306	1,403	1,504	1,677	1,825	2,844	3,254	4,187	231.0
관악	989	1,043	1,013	1,222	1,522	1,977	2,353	4,515	5,532	7,215	629.5
서초	3,038	3,616	3,586	4,011	3,989	4,134	4,327	5,463	5,884	5,139	69.2
강남	4,765	4,552	4,471	4,964	5,150	5,498	5,675	7,054	7,816	6,866	44.1
송파	2,573	2,637	2,527	2,503	2,467	2,759	2,851	3,753	4,146	4,183	62.6
강동	1,046	1,060	959	1,037	1,204	1,344	1,534	2,040	2,266	2,605	149.0
전체	51,776	52,923	50,990	57,189	61,920	67,908	73,228	102,882	114,685	129,600	250.4

자료: 서울시 통계 DB

## 2. 연령별 현황

- 거주 외국인을 5세 계급별로 구분했을 때, 연령별 분포는 20대 중반에서 40대 후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이들 연령대는 활발한 경제활동의 주체이자 자녀를 동반하고 있는 연령대라고 볼 수 있다. 5세에서 19세까지의 학령기에 있는 외국인은 1999년 12,713명에서 2005년 10,511명으로 감소하였고, 2005년 말 현재 학령기인구는 서울시 등록 외국인의 약 8.1% 수준이다.

〈표 2〉 서울시 외국인 거주 연령별 현황

(단위: 명)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0세~4세	3,518	3,096	2,991	3,926	2,949	2,865	2,919
5세~9세	5,232	4,946	4,400	4,468	3,705	3,495	3,593
10세~14세	4377	4,602	4,391	4,633	3,673	3,385	3,438
15세~19세	3104	3434	3,682	3,899	3,250	3,069	3,480
20세~24세	4,826	5,421	6,378	6,744	6,930	7,003	8,257
25세~29세	7,790	8,568	9,129	9,810	13,263	13,200	13,751
30세~34세	7530	8,696	9,637	10779	15,128	15133	15,103
35세~39세	6038	6,756	7,322	8,350	13,434	15,500	17,043
40세~44세	4,595	4,999	5,348	6,096	12,047	14,812	18,048
45세~49세	3186	3,499	4,429	4,485	8,893	12,409	14,777
50세~54세	2474	2,676	2,925	3,140	7,342	8,980	12,139
55세~59세	1,765	1,920	2,171	2,306	6,496	8,341	8,702
60세이상	2,754	3,307	5,105	4,592	5,772	6,493	8,410
합계	57,189	61,920	67,908	73,228	102,882	114,685	129,660

자료: 서울시 통계 DB

### 3. 국적별 현황

#### 1) 등록외국인 국적별 현황

- 서울시 등록외국인의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적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1999년에는 미국이었으나 2005년도는 중국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법무부의 국내 체류 배우자의 60%가 중국국적의 소유자라는 발표를 고려할 때 이는 최근 급증한 조선족과의 혼인에 따른 증가도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는 OECD 국가와 비 OECD 국가로 나누어 현황을 살펴본다.
- OECD 국가 중에선 미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 OECD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전체 외국인 수의 80% 가까이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보였으며, 1999년 대비 증가율 역시 6배가 넘었다. 전체 외국인 수는 1999년~2005년 57,189명에서 129,660명으로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인들이 다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OECD 국가의 전체 인구는 1999년 30,761명에서 2005년 24,285명으로 오히려 약 21% 감소하였다. 이는 2003년도에 외국인수가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인데, 이후에는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비 OECD 국가의 인구는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3〉 외국인 거주 국적별 현황

(단위: 명)

OECD가입국	1999(A)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B)	B/A(%)
미 국	18,763	16,658	15,814	16,342	11,484	10,959	11,487	-38.8
일 본	6,332	6,703	7,793	7,559	6,139	6,271	6,710	6.0
캐 나 다	1,809	1,795	1,909	2,262	1,723	1,893	2,084	15.2
영 국	836	854	977	1,057	828	848	1,001	19.7
프 랑 스	1,180	1,223	1,257	1,360	1,076	1,015	1,001	-15.2
독 일	1,003	984	937	997	696	681	753	-24.9
오스트레일리아	838	837	868	997	716	656	674	-19.6
뉴 질 랜드	-	-	-	-	-	293	298	-
네 덜 란 드	-	-	-	-	-	-	136	-
아 일 랜 드	-	-	-	-	-	-	141	-
전체	30,761	29,504	29,555	30,574	22,662	22,616	24,285	-21.1

OECD비가입국	1999(A)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B)	B/A(%)
중국	12,283	17,432	21,259	22,535	52,572	64,762	77,881	534.1
대만	3,011	2,318	1,371	2,975	8,908	8,899	8,923	196.4
필리핀	2,005	2,432	2,665	2,741	3,894	3,740	3,646	81.9
베트남	841	1,083	1,109	1,072	2,052	2,216	2,385	183.6
인도네시아	793	912	1,210	950	955	770	542	-31.7
러시아	825	1,019	1,302	1,449	1,073	927	948	14.9
인도	491	574	574	630	836	828	975	98.6
방글라데시	303	412	448	466	731	634	538	77.6
몽골	-	-	-	-	1,936	2,128	2,139	-
홍콩	-	-	-	-	-	144	192	-
기타	5,876	6,684	8,415	9,836	4,641	2,513	2,252	-61.7
전체	26,428	32,866	38,353	42,654	77,598	87,561	100,421	280.0

자료: 서울시 통계 DB

## 2) OECD 외국인 국적별 현황

- 서울시에 등록된 OECD 국가 외국인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몇몇 국가의 외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미국(11,660명, 45.1%) > 일본(7,000명, 27.1%) > 캐나다(2,176명, 8.4%) > 영국(1,090명, 4.2%) > 프랑스(943명, 3.6%) > 독일(786명, 3.0%)의 순이며 상위 6개 국가 외국인수가 OECD 전체의 91.4%를 차지하고 있다.
- OECD 외국인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보낼 수 있는 소득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들 국가의 학령기(6~18세)는 6,252명이다.

<표 4> 서울시 OECD국적 외국인 현황(국적별, 연령별, 성별)

(단위: 명)

구분 (연령/성별)	0-5 (남)	0-5 (여)	6-12 (남)	6-12 (여)	13-18 (남)	13-18 (여)	19- (남)	19- (여)	건수	비율(%)	
미 국	1,337	996	1,296	1,162	1,056	871	2,970	1,972	11,660	45.1	
일 본	164	145	283	286	203	248	2,165	3,506	7,000	27.1	
캐 나 다	69	64	65	51	34	24	1,160	709	2,176	8.4	
영국	35	38	51	37	17	19	648	245	1,090	4.2	
프 랑 스	57	45	67	58	36	27	445	208	943	3.6	
독 일	35	43	49	31	14	11	431	172	786	3.0	
오스트레일리아	53	39	36	38	19	11	351	154	701	2.7	
뉴 질 랜드	15	13	13	11	0	4	174	81	311	1.2	
스 웨 덴	5	5	11	7	8	5	68	32	141	0.5	
네 덜 란 드	9	8	11	7	2	4	64	35	140	0.5	
아 일 랜드	4	4	0	0	0	0	91	40	139	0.5	
이 탈 리 아	5	3	1	2	1	1	64	27	104	0.4	
터 키	2	1	3	1	1	1	65	30	104	0.4	
스 위 스	2	4	6	8	2	1	46	17	86	0.3	
멕 시 코	0	1	1	2	1	0	41	19	65	0.3	
벨 기 에	4	3	0	0	1	4	38	7	57	0.2	
오스트리아	1	1	3	3	1	2	28	18	57	0.2	
폴 란 드	1	1	0	0	1	0	20	26	49	0.2	
스 페 인	1	2	0	0	0	1	23	19	46	0.2	
덴 마 크	3	2	6	2	3	0	18	11	45	0.2	
핀 란 드	0	1	0	0	0	4	18	10	33	0.1	
체 코	0	1	2	2	0	1	11	11	28	0.1	
노 르 웨 이	2	1	0	0	1	0	14	8	26	0.1	
형 가 리	0	1	0	0	0	0	8	12	21	0.1	
포 르 투 갈	0	0	0	0	0	0	7	5	12	0.09	
슬 로 바 크	0	0	0	0	0	0	3	7	10	0.08	
그 리 스	0	0	0	0	0	0	4	2	6	0.05	
합 계	인원	1,804	1,422	1,904	1,708	1,401	1,239	8,975	7,383	25,836	100.0
	비율(%)	7.0	5.5	7.4	6.6	5.4	4.8	34.7	28.6	100.0	

자료: 출입국관리사무소 2006년 8월말 현재 서울시 외국인등록 자료 재정리

#### 4. 체류별 현황

##### 1) 서울시 주요 체류자격별 현황

- 서울시의 외국인 가운데 기업인을 포함한 전문직과 동반가족으로 체류자격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직 외국인은 2004년 12월 12,710명에서 2006년 9월 31,832명

으로 약 19.2% 증가하였다.

- 유학생은 4,465명에서 6,964명으로 55.97%, 기업투자는 4,051명에서 4,750명으로 17.3% 증가하여 유학생의 증가가 급속하였다.
- 외국인전체 대비 이들 전문직의 비율은 2005년과 12월과 2006년 9월 각각 23%와 19%이었다. 반면 도쿄도의 비율은 2002년 약 40%에 달해 서울시의 전문직 외국인 비율은 미흡함을 알 수 있고 향후 기업 및 고급인력 유치에 보다 활발히 나서야 됨을 시사하고 있다.

<표 5> 서울시 전문직 체류자격별 외국인 현황

(단위: 명)

	2004.12(A)	2005.12	2006.9(B)	B/A(%)
문화예술(D1)	21	109	116	552.38
유학(D2)	4,465	5,706	6,964	155.97
일반연수(D4)	726	362	360	49.59
취재(D5)	78	75	75	96.15
종교(D6)	499	567	570	114.23
주재(D7)	897	943	952	106.13
기업투자(D8)	4,051	4,732	4,750	117.25
무역경영(D9)	87	115	172	197.70
교수(E1)	314	376	411	130.89
회화지도(E2)	3,143	3,483	4,017	127.81
연구(E3)	352	361	402	114.20
기술지도(E4)	37	48	17	45.95
전문직업(E5)	289	291	325	112.46
예술흥행(E6)	127	85	56	44.09
특정활동(E7)	1,922	2,350	2,575	133.98
거주(F2)	4,605	4,340	3,988	86.60
동반(F3)	5,097	5,630	6,082	119.33
계	26,710 (23%)	29,573 (23%)	31,832 (19%)	119.18
서울시전체	114,685	129,660	165,923	144.68

자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표 6〉 도쿄도 비영주자 전문직 체류자격별 외국인 현황

(단위: 명)

구분	1997(A)	2002(B)	B/A(%)
유학	20,852	35,000	168
인문지식/국제업무	12,762	18,094	142
기술	4,214	7,635	181
기능	3,602	4,348	121
기업	3,446	5,793	168
투자/경영	3,638	4,078	112
교육	838	975	116
교수	1,005	1,582	157
동반	17,709	18,934	107
전문직 계	68,066 (37.5%)	96,439 (40.1%)	119.18
도쿄도 전체	181,269	240,300	144.68

자료: 도쿄도 생활문화국 내부분서

### Ⅲ. 서울시 외국인 거주 현황

#### 1. 서울시 외국인 분포 개요

- 2005년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주 거주지역은 전통적인 외국인 밀집지역과 최근에 크게 부각된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전통적인 외국인 밀집지역은 급격하게 용산구, 서대문구, 중구에 비교적 집중되어 있으며, 주로 외국인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어 있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강남구, 서초구등 강남지역일대로 확대되었다.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주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국적이다. 특히 한남동, 이태원동, 성북동, 연희동, 방배동 일대는 인근에 대사관과 외국인학교가 위치하여 선호지역으

로 분류된다.

- 반면, 최근에 구로와 영등포구, 금천구 등에 외국인근로자를 중심으로 거주 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구 역시 200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들 지역의 급격한 외국인증가는 2000년 이후 크게 증가된 중국인, 베트남인, 한국계중국인 등 외국인 노동자의 급격한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이들은 주로 공단 등 직장이 가까운 곳으로 선호하고 있다.

## 2. 서울시 OECD국적 대(對) 비OECD 국적 외국인의 구별 분포 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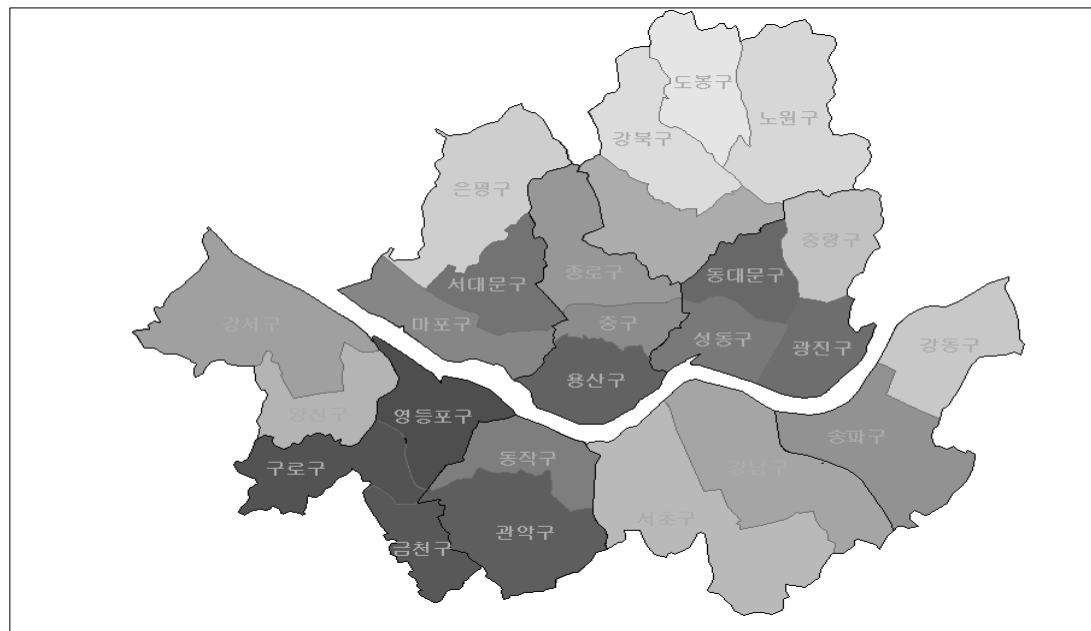
- 특징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OECD국적을 가진 외국인과 비OECD국적을 가진 외국인의 거주지가 구별로 확연한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OECD국적을 가진 외국인은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서대문구, 종로구, 성북구 등 기존의 전통적인 외국인 주거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반면, 비 OECD 외국인은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등지에 비교적 집중되어 있다. 또한 서울의 동북권(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중랑구 등)이나 은평구, 강서구, 양서구 등 서울의 일부지역은 외국인의 거주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먼저, OECD 국적을 보유한 외국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자치구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용산구(4,807명, 18.6%) > 강남구(3,565명, 13.8%) > 서초구(2,545명, 9.9%) > 서대문구(1,884명, 7.3%) > 종로구(1,297명, 5.0%) > 성북구(1,064명, 4.16%)의 순이었으며, 상위 6개 자치구의 OECD국적 외국인수는 58.7%에 해당하였다.
- 다음으로, 비 OECD 국적을 보유한 외국인현황을 자치구 순서대로 살펴보면, 영등포구(18,335명, 13.5%) > 구로구(15,131명, 11.1%) > 금천구(9,529명, 7.0%) > 관악구(8,942명 6.6%) > 용산구(5,804명, 4.3%) > 동대문구(5,669명, 4.2%)의 순이었으며, 상위 6개 자치구의 비 OECD국적 외국인수는 46.6%에 해당하였다.

〈표 7〉 OECD국적 대(對) 비OECD국적 외국인 분포현황비교

OECD국적 외국인 인원현황			비OECD국적 외국인 인원현황		
구	건수	비율(%)	구	인원	비율(%)
용산구	4,807	18.6	영등포구	18,335	13.5
강남구	3,565	13.8	구로구	15,131	11.1
서초구	2,545	9.9	금천구	9,529	7.0
서대문구	1,884	7.3	관악구	8,942	6.6
종로구	1,297	5.0	용산구	5,804	4.3
성북구	1,064	4.1	동대문구	5,669	4.2
송파구	1,015	3.9	광진구	5,601	4.1
마포구	975	3.8	서대문구	5,408	4.0
관악구	760	2.9	성동구	5,371	3.9
광진구	750	2.9	동작구	5,342	3.9
중구	720	2.8	마포구	5,087	3.7
노원구	703	2.7	중구	4,543	3.3
동대문구	676	2.6	송파구	4,156	3.1
영등포구	648	2.5	종로구	4,142	3.0
양천구	614	2.4	강서구	4,000	2.9
성동구	601	2.3	강남구	3,992	2.9
강서구	594	2.3	성북구	3,960	2.9
은평구	482	1.9	양천구	3,059	2.2
동작구	461	1.8	서초구	3,041	2.2
강동구	390	1.5	중랑구	2,835	2.1
도봉구	315	1.2	강동구	2,810	2.1
구로구	290	1.1	은평구	2,666	2.0
강북구	289	1.1	노원구	2,643	1.9
중랑구	239	0.9	강북구	2,192	1.6
금천구	152	0.6	도봉구	1,774	1.3
합계	25,836	100.0	합계	136,032	100.0



<그림 2> OECD국적 외국인 분포현황



<그림 3> 비 OECD국적 외국인 분포현황

## IV. 거주 외국인 장래인구 추정

### 1. 경쟁도시의 외국인 비율

- 서울의 외국인 비율을 주요 경쟁도시의 외국인수와 비율을 살펴보면, 도쿄, 싱가포르, 홍콩 등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먼저 도시별 외국인수(명)를 보면, 싱가포르 753,400명 > 홍콩 524,200명 > 도쿄도 특별구 293,124명 > 서울 129,660명의 순으로 서울이 가장 낮았으며, 또한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인구비율(%)은 싱가포르 17.8% > 홍콩 7.62% > 도쿄도 특별구 3.49% > 서울 1.26%의 순으로 역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표 8〉 주요 경쟁도시의 외국인비율

도시명	기준년도	면적(km <sup>2</sup> )	인구(백만)	외국인인구(명)	외국인인구비율(%)	인구밀도(인구/km <sup>2</sup> )
서울	2005년말	605.4	10.297	129,660	1.26	17,009
홍콩	2004.6	1,104	6.88	524,200	7.62	6,380
도쿄도	2005.9말	2187	12.544	360,000	2.87	5,736
도쿄도내 23개 특별구	2004년말	621.49	8.396	293,124	3.49	13,510
싱가포르	2004년말	647.5	4.240	753,400	17.77	6,066

주: 싱가포르의 경우 2004년 기준 싱가포르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포함 3.486백만명 (growth rate 1.15%)이며, 총인구는 non-resident 753.4백만명을 포함한 4.240백만명 임.

### 2. 거주외국인 장래인구 추정

- 2001~2005년 5년간 서울의 외국인은 연평균 13.8% 증가하였다. 또한 2006년 8월 현재 2005년 말에 비해 약 23% 증가한 16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향후 지속되기는 어렵겠지만 활발한 증가율이 예상된다. 향후 예상증가율을 12%, 10%, 8%로 나누어 2012년의 외국인의 수를 추정하여 본다.
- 연 12% 증가할 때 2012년 외국인은 약 287천명에 달해 현재 도쿄도 23구의 외국인수와 유사해질 것이고 연 10% 증가한다면 2012년 약 250천명에 달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보면 10년 후인 2015년경 외국인의 수가 300천명에 달해 외국인비율이 3%가 넘는 국제도시가 될 것이다.

<표 9> 서울시 외국인인구 추이 및 추정

(단위: 명)

증가율	실적치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2%	45,072	61,920	67,908	73,228	102,882	114,685	129,660
10%	45,072	61,920	67,908	73,228	102,882	114,685	129,660
8%	45,072	61,920	67,908	73,228	102,882	114,685	129,660
증가율	추정치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2%	145,219	162,646	182,163	204,023	228,505	255,926	287,300
10%	142,956	157,251	172,976	190,274	209,624	230,232	253,255
8%	140,356	151,585	163,712	176,809	190,953	206,230	222,728

#### IV. 정책적 시사점

최근의 서울거주 외국인의 급증과 구별구성은 몇 가지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먼저, 최근까지 서울시의 외국인 관련 정책을 OECD 국가의 외국기업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수립하였다. 하지만 현재 비 OECD국가의 거주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주로 이주노동자 혹은 혼인 목적으로 체류하는 조선족이다. 따라서 이들의 거주 특성 및 경제적 요인에 맞는 추가적인 외국인 정책이 필요하다.

전체 외국인 가운데 기업경영인, 전문직 등 고급인력 외국인은 2006년 9월 31,832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19%이다. 이는 2002년 도쿄의 40.1%에 비교하여 매우 적고 또한 싱가포르의 약 7~8만 명에 해당하는 고급인력에 비해서 무척 적다. 서울시는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

2006년 9월 외국인 현황을 보면 유학생이 6,964명으로 단일집단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학생들은 졸업 후 국내에 고급인력으로 잔류하거나 혹은 귀국을 하더라도 서울시에는 귀중한 인적자산이므로 이들을 위한 정책(예: 외국유학생 기숙사)이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문헌

- 출입국관리 통계연보, 서울출입국관리국 출입국관리과
- 서울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도쿄도 생활문화국 내부문서